

유 학 보 고 서

파 견 대 학	합비대학
파 견 기 간	2016.02~2017.02
학과 및 학년	중국경제통상학과 4학년
성 명	박윤정
제 출 일	

- * 유학보고서는 해외파견 유학/연수 참가를 입증하는 자료이며, 앞으로 유학을 희망하는 후배들을 위해 기록되는 자료입니다. 유학에 관련된 아래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하기 바랍니다.
- * 파견대학 및 유학관련 사진(파견대학/기숙사내부 등)을 반드시 첨부하기 바랍니다.

1. 파견대학 및 날씨, 음식, 지역 등 소개

학기시작: 2016년2월25일

학기종료: 2017년1월2일

방향:

학교주소:

중국 안휘성의 성도 합비에 위치한 합비대학의 날씨는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날씨의 변화가 갑작스럽고 큼니다. 주변에 공장들이 많아 공기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합비는 이제 막 발달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어딜 가도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공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지하철도 현재 공사중이기 때문에 곧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식은 중국음식을 크게 싫어하지 않는다면 학교 근처 음식의 종류가 다양하진 않지만 비교적 저렴하고 맛있습니다.

2. 학과 및 수업소개 (현재 이수학점, 과목수강의 난이도 등)

합비학원엔 다른 학교와는 조금 다르게 어학당이 없고 중문과 소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중문과에서 유학생들로만 이루어진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중국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는 본과 수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유학생들로 이루어진 수업에는 거의 다 한국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유학생수업은 어학반과 학력반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학력반에는 거의 제주도 한라대학교와 2+2로 온 학생들입니다. 수업은 많은 편이며 아침 일찍부터 저녁늦게까지 하루종일 수업하는 날도 있습니다. 유학생 수업엔 전체적으로 hsk 5급준비반 까지 있는데 5급을 이미 통과한 몇 학생들이 6급 준비반을 만들어달라고 했지만 교실이 부족해 못 만든다고 하여 학력반과 자신이 선택한 전공을 섞어서 듣게 했습니다. 저는 중문과의 학력반과 경제학과의 무역수업을 들었는데 경제학과교수님 또한 한국인 유학생에게 큰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환경이 중국어를 배운 적 없는 학생이 간다면 빨리 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기숙사 및 유학생 현황 (기숙사 숙소 및 사용요금을 정확하게 기재, 기숙사 사진 첨부)

기숙사는 1학기에 중국돈으로 6000원이나, 한남대에서 온 학생들은 1년동안 기숙사비를 내지 않아 다른 학교 학생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기숙사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6층건물로 이루어져있으며 한 집에 방이 두 개, 거실, 화장실, 주방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한방에는 2명이 같이 살고 기숙사는 전체적으로 깨끗한 편입니다. 빨래는 1회 3원으로 기숙사 아주머니에게 드리면 직접 해주십니다. 기숙사 아주머니들의 제지로 외부인이 잘 들어올 수 없으며 수업듣는 교실과 아주 가깝습니다.

4. 식비, 용돈, 책, 핸드폰 등의 기타 생활비(학비와 기숙사비를 제외한 소요비용)

학교앞에서 밥을 먹는다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밥을 먹을 수 있고, 백화점이나 시내로 나간다면 학국과 비슷한 물가에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책은 학기 초 선생님께서 알려주시고 복사를 하거나 인터넷 쇼핑몰로 각자 구입하게 됩니다. 과목 수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책의 권수도 가격도 달라집니다. 핸드폰은 학교안에 있는 통신사에서 하게 되면 저렴한 가격에 핸드폰요금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외에 학교근처 백화점에 있는 헬스장도 다녔는데, 1년 12000위안으로 비교적 좋은 시설의 헬스장도 다닐 수 있었습니다.

5. 이 학교를 선택한 후배들에게(장단점 등)

이 학교는 중국어를 전혀 배운적이 없는 학생들이 간다면 빨리 늘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5급까지는 커리큘럼이 잘 갖춰져 있는 듯 하지만 6급을 준비 하는 학생이 들을 수 있는 반은 전공수업 아니면, 중국고대 문학등의 중문과 수업이라 아쉬움이 남습니다.가장어려운 난이도의 6급이라 수업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혼자 준비해야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하이 항저우 쑤저우 상하이등이 가까이에 있어 여행을 쉽게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합비는 이제 막 발전하고 있는 신생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갖추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 학생이 간다면 확실히 실력이 늘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인이 많지 않아서 한국인들에게 호의적이고 호기심이 많습니다. 길 또는 식당에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말을 걸기도 합니다. 중국인 친구를 사귀기에 좋은 환경입니다. 가장 아쉬운 것은 학교에서 유학생관련 일처리를 잘 못합니다. 학교 일정도 계속 바뀌어 언제 귀국해도 되는지도 계속 바뀌었고,5급을 이미 취득한 학생이 많아 6급 준비반을 만들어 준다고 했으나 결국 교실이 없다고 만들어 주지 않아서 많은 학생들을 헤메게 만들었습니다.

6. 유학생생활을 마친 소감

합비대학에서 1년동안의 교환학생을 마치면서 시원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중국경제통상학과이기 때문에 저는 2학년 때 베이징 전매대에 교환학생을 다녀와서 물론 베이징에 비교하면 작은 도시이었던 합비는 베이징과 비교해 장점도 단점도 있었던 학교였습니다. 장점으로는 대표적으로 한국인을 많이 보던 한국인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지 않던 베이징 사람과는 다른 따듯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합비사람들의 친절에 쉽게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었고 단점을 간단히 말하자면 베이징에 있던 학교보다는 확실히 준비되지 않던 유학생 커리큘럼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합비에서의 유학생생활을 하면서 중국에서 좋은 추억을 남겨주었으며 저의 중국어에 있어서도 확실한 향상을 보여주었습니다.

